

##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 유의성 검증에 관한 연구: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정경희 (동국대학교)\*

성창수 (동국대학교)\*\*

###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창업기업 선정여부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여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지난 3년간 지원한 창업기업 973개의 평가점수와 선정여부 결과를 수집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여부에 있어 창업기업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선정평가항목에 의한 선정여부의 영향은 2015년 성별(남), 창업자의 보유역량, 2016년 창업여부(기창업),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2017년 창업여부(기창업)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최근 3년간 전체 선정의 유의성 분석결과, 매년 정확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비 선정보다 선정에 대한 정확도가 더욱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여부 판별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 및 부적합한 구성항목을 확인하고 매년 창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의 변경은 선정의 정확도를 더욱 낮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창업기업 선별기능에 대한 선정평가지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 창업지원정책,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 1. 서론

국내 창업 환경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관련 제도를 통해 창업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활성화 대책의 시행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존율은 창업의 질적인 측면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2015)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후 62.4%, 3년 후 38.8%, 5년 후 27.3%이며, 10년 후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은 8%에 불과하다(김경훈, 2017). 또한 OECD 주요국 중에서도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창업 1-5년 후 생존율은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진수 외, 2016). 이와 같이 정부의 투자 대비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의 효율성 방안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함께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는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을 통해 아이디어 및 내수 위주 창업에서 기술기반 해외지향형 창업과 시장밀착형 육성 체제를 개편,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자금을 기존 계획 대비 10조 이상 투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창업기업 전략방향을 발표하였다(중소기업청, 2016a).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창업자들의 기대심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진정성 없이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수익모델로 인식하는 창업기업을 선별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우수 창업자 발굴을 위한 선별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진수 외, 2013).

이러한 정부지원정책 강화 노력에 비해 정부지원의 수혜를 받을 창업자(기업)에 대한 선별방식에는 여전히 전문성과 체계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정희·최종인(2012)은 지금까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자체 내부 지침이나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 선정평가지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 창업자 선정평가방식에 서면 및 발표평가 이외 멘토링 및 심층면접 등을 시행하여 창업자의 창업의지 및 역량 등을 전문 멘토단이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선발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차 평가인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에서 많은 수의 창업자들을 선별해야 하기에 서류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진다. 기관의 서류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

\* 주저자,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heemiso@dongguk.edu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redsun44@dongguk.edu

· 투고일: 2018-07-10 · 수정일: 2018-08-20 · 게재확정일: 2018-08-29

자 선발에 있어 심사지표보다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많은 부분 치중되어 있고, 이는 평가 시마다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평가단의 매번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 또한 대다수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로(Ahmad et al., 2010; Sarwoko et al., 2013; Barazandeh et al., 2015; 김성태·홍재범, 2015; 성장수·박주연, 2016), 창업기업 선별을 위한 선정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Bergek & Normman, 2008; 구정희·최종인, 2012). 많은 정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업자 개인 및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도 저조하게 되고, 결국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업자 선별 기준으로 선정평가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창업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창업기업 선정여부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선별기준으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의 선정평가지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창업지원정책의 이해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을 개시한 이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과 시장기회를 포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 분야와 더불어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을 말한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대상인 초기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의 3호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창업지원정책을 살펴보면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시작으로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창업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정책적으로 분리하여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하규수 외, 2013).

창업지원정책은 창업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창업 준비와 실행 단계에서는 창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초기 성장단계로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을 집중하여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 평가를 위해 실시된 「2017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

년까지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25,762개의 창업기업이 설립되었고, 매출, 고용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창업지원기업 중 코스닥 상장기업은 2개, 코넥스 상장기업 3개 등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졌으며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 운영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은 341개로 1.3%, 고성장기업 중 창업 후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76개로 0.6%로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중소기업청, 2016b). 이에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방향은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가의 발굴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선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우수 창업기업 선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이창영 외, 2016; 이희경, 2017), 일부는 기존 선정평가지표의 문제점 제기 및 이에 따른 선정평가지표의 중요성 강조에 따라 선정평가지표 개발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존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성근·김상곤, 2003; 김우재·이홍배,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창업지원정책 예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인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과 기업가정신 확산을 목표로 타 창업지원사업과 비교해 창업 초기 매출은 다소 적으나, 점차 증가하여 4차 년도의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보다 매출규모나 매출 증가율 측면에서 우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김선우 외, 2015).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은 2011년 대학 중심의 한국형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주요 권역별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창업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 인력과 연구 장비, 청년층이 집약된 기술창업의 산실로 기술창업의 요람인 대학 발 창업지원 사업 및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선우 외, 2015).

세부 주요사업으로 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의 경우, 서면평가·멘토링캠프·발표평가의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후속 지원 프로그램은 전년도까지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과제당 30백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 4개 년도에 총 2,266명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매출액 1,519억 원, 일자리 5,183명, 지적권 3,558건의 성과를 창출하였다(김선우 외, 2015).

이와 같이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2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 및 연구동향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창업자 역량에 대한 평가와 창업아이템 평가로 구분되며, 창업아이템 평가는 아이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시장성,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등 사업화 역량을 평가한다(Bergek & Normman, 2008).

창업기업 평가지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yebyce & Bruno(1984)는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 활동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평가항목 요인분석을 통해 창업자역량, 시장매력도, 제품차별성, 경쟁업체 대체능력, 현금회수 가능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MacMillan et al.(1985)은 창업기업 선정의 중요한 기준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창업자 인성 및 경험, 제품서비스특성, 시장경쟁력, 재무적 상황, 조직역량 등 총 6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Marino & Noble(1997)은 창업기업 평가요인과 창업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산업 구조적 특성, 시장전략 특성, 창업팀의 역량 등을 평가지표로 제시하였으며, Lai(2006)는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위하여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출구 잠재력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경영력, 비즈니스 매력도, 성장잠재력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김종민(2000)의 연구에서는 창업기업 평가를 위해 경영자의 능력, 기술 수준, 시장성, 재무 타당성, 기업환경, 경제성을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박인선·지기철(2007)은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지표 중 비재무적 평가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어 경영진의 경영방침, 대외경쟁력, 고객관리, 외부시장 환경 및 제품 자동화 등을 지표로 제시하였다.

주요 관련 기관에서 활용하는 창업아이템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의 대항목과 8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주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으로 구분하여 총 3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성태·홍재범, 2015; 정병옥·서영호, 2017).

창업선도대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평가 가이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창업진흥원(2017) 평가 가이드를 살펴보면, 서류평가, 심층평가 (멘토링 및 발표평가)의 2단계 평가를 통해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1단계 서류평가 통과자(최종 선정인원 규모 1.5배수 이상, 3배수 미만)를 대상으로 2단계 심층평가가 진행되며, 심층평가는 멘토링과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창업자 사업역량 자가진단 및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과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우수 평가 등급의 창업선도대학의 경우, 매년 서류평가에서 평균 10:1 의 경쟁률로 1차 사업계획서 평가만으로 최종 선정 인원의 1.5-3 배수 만이 선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1차 서류평가의 중요성 및 세부 평가항목별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최근 3년간의

창업선도대학 서류평가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015년도의 평가지표로 창업자의 역량은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창업자의 보유역량,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은 기술의 차별성, 기술이 난이도, 기술의 구현 가능성, 창업아이템의 시장성은 창업아이템의 홍보 및 판매전략 우수성, 창업아이템의 시장진입 가능성(경쟁력), 창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수익성), 사업화 실현가능성은 창업사업화 실현계획 적정성(추진일정 및 자금계획)으로 각 세부 항목별 10점씩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도 평가지표는 2015년도와 동일하나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항목에서 창업아이템의 시장진입 가능성 (경쟁력)항목 대신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으로 일부 수정되어 활용되었다. 이는 ‘본 글로벌 (Born Global)’ 창업의 중요성의 증가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본 글로벌 창업 관심의 확산이 평가지표에 반영된 결과이다. 본 글로벌 기업은 설립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글로벌 잠재력을 구현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6년 평가지표에 반영된 글로벌 진출실적 및 잠재력의 항목은 글로벌 시장을 등한시 할 경우 해외 기업에게 국내 시장을 잠식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혁신 기술 기반의 본 글로벌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의 증가로 반영된 지표이다.

2017년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에 사업모델의 차별성이 추가 반영되었고, 글로벌 진출가능성이 별도의 대항목으로 분류되어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해외수출망 확보계획의 구체성으로 배점은 동일하나 더 강조되는 평가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술성과는 별도로 기술개발역량으로 R&D 집약도 (연구개발 투자 비율), 연구개발 전담부서, 장비보유 현황 등의 항목이 추가 신설되었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방향에 따라 기술 중심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된 정책반영에 따라 단순히 평가항목의 일부 수정 및 추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중요성이 부각되는 평가항목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평가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사업 모델의 차별성이 비즈니스모델 중요성의 부각으로 기술성에 추가되었지만,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도와 비즈니스 수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항목으로 기술성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도 야기된다. 더불어, 기존 2015-2016년도 평가지표의 평가항목인 사업화 실현가능성 또한 단순히 사업화의 추진일정 및 자금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사업지침에 적합하게 작성하기에 우수 창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변별력이 낮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단순히 추진일정과 자금계획을 평가하는 항목이 아닌 사업화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1>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최근 3년도 평가지표(2015-2017)

연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합계 점수
2015	창업자의 역량 (20)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10	100
		창업자의 보유역량(경력, 전공, 입상 실적)	1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30)	기술의 차별성(독창성 구성)	10	
		기술의 난이도(기술적 수준)	10	
		기술의 구현(실현) 가능성	10	
	창업아이템의 시장성(30)	창업아이템의 홍보 및 판매전략 우수성	10	
		창업아이템의 시장진입 가능성(경쟁력)	10	
		창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수익성)	10	
	사업화 실현가능성(20)	창업사업화 실현계획 적정성(추진일정)	10	
		창업사업화 실현계획 적정성(자금계획)	10	
2016	창업자의 역량 (20)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10	100
		창업자의 보유역량(경력, 전공, 입상 실적)	1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30)	기술의 차별성(독창성 구성)	10	
		기술의 난이도(기술적 수준)	10	
		기술의 구현(실현) 가능성	10	
	창업아이템의 시장성(30)	창업아이템의 홍보 및 판매전략 우수성	10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10	
		창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수익성)	10	
	사업화 실현가능성(20)	창업사업화 실현계획 적정성(추진일정)	10	
		창업사업화 실현계획 적정성(자금계획)	10	
2017	창업자의 역량 (20)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10	100
		창업자의 보유역량(경력, 전공, 입상 실적)	1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40)	기술의 차별성(독창성 구성)	10	
		기술의 난이도(기술적 수준)	10	
		기술의 구현(실현) 가능성	10	
		사업모델(BM)의 차별성	10	
	창업아이템의 시장성(20)	창업아이템의 홍보 및 판매전략 우수성	10	
		창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수익성)	10	
	글로벌 진출가능성(10)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해외수출망 확보계획의 구체성	10	
	기술개발 역량(10)	R&D 집약도(연구개발 투자 비율) 연구개발 전담부서, 장비보유 현황 등	10	

\* 자료원 : 창업진흥원(2015,2016,2017) 평가가이드 재구성

범으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실증연구

####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존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가 창업기업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2017년 창업선도대학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3개 대학의 최근 3년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신청한 창업기업 973개의 평가점수와 선정여부의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된 3개 대학은 중소기업청(2016a)의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에 따라 운영기간 3년 이상의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성과 분석결과, 총 4등급(S, A, B, C) 중 S등급에 해당되는 3개 대학으로 창업선도대학을 대표하는 대상으로 표본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분석방

#### 3.2 분석결과

##### 3.2.1 표본의 특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창업기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759명으로 전체표본의 78.0%를 차지하고, 여성은 214명으로 22.0%, 창업유형은 일반창업이 672명(69.1%), 기술창업은 301명(30.9%)로 남성 및 일반창업의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업종은 지식서비스가 650명(66.8%), 제조가 323명(47.1%)으로 지식서비스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며, 창업유무의 경우 예비창업이 458명(47.1%), 기창업이 515명(52.9%)으로 기창업자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 일반창업, 지식서비스, 기창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759	78.0
	여성	214	22.0
창업유형	일반	672	69.1
	기술	301	30.9
창업업종	지식서비스	650	66.8
	제조	323	33.2
창업여부	예비창업	458	47.1
	기창업	515	52.9
총계		973	100

### 3.2.2 창업기업 특성변인의 선정여부에 대한 차별성 분석

2015년에서 2017년의 창업기업 특성변인의 선정여부에 대한 차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한 기업의 선정평가항목별 점수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평가의 각 항목별 차별성을 알아보았다. 연도별 참여 기업 수는 2015년 329개, 2016년 303개, 2017년 341개로 총 973개 기업이며, 연도별 선정분포는 2015년은 7.6%, 2016년은 7.9%, 2017년은 14.7%로 다음 <표 3>과 같다. ( $\chi^2=11.588, p<.01$ ).

<표 3> 연구대상 업체의 연도별 선정여부

연도	비선정(%)	선정(%)	전체(%)	$\chi^2(p)$
2015년	304(92.4)	25(7.6)	329(100.0)	11.588** (.003)
2016년	279(92.1)	24(7.9)	303(100.0)	
2017년	291(85.3)	50(14.7)	341(100.0)	
전체	874(89.8)	99(10.2)	973(100.0)	

\*\* $p<.01$

창업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별, 창업유형, 창업업종 및 창업여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분포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214명(22.0%), 759명

(78.0%)이며, 지원 대비 최종 선정 여부에 대한 성별 비율은 여성 3.7%, 남성 12.0%로,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 시 지원 대비 선정 비율이 3배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chi^2=12.435, p<.001$ ). 둘째, 창업유형은 일반창업과 기술창업이 각각 672개(69.1%), 301개(30.9%) 수준이며, 지원 대비 최종 선정은 2015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2016년은 기술창업(16.5%)이 일반창업(4.2%) 보다 거의 4배정도 높았으며( $\chi^2=13.075, p<.001$ ), 2017년 또한 일반창업(8.1%)에 비해 기술창업(22.6%)의 선정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chi^2=14.238, p<.001$ ). 따라서 전체 데이터에서는 일반창업이 6.3% 선정된 반면, 기술창업은 일반창업의 3배수인 18.9%로 창업기업 선정에 있어 기술창업이 더욱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chi^2=30.547, p<.001$ ). 셋째, 창업업종은 지식서비스와 제조가 각각 650명(66.8%), 323명(33.2%)이며, 연도별 선정의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데이터에서는 제조 13.0%, 지식서비스 8.8%로, 제조기반 창업이 지식기반 창업의 선정수준보다 높았다( $\chi^2=4.232, p<.05$ ). 넷째, 창업여부는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각각 47.1%, 52.9%로 구성되며, 선정여부는 예비창업자는 5.5%, 기창업자는 14.4%로 거의 5배 가까이 기창업자의 선정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chi^2=21.059, p<.05$ ). 이는 2015년은 차이가 없었으나 2016년은 예비창업자 2.4%, 기창업자 11.7%로 거의 5배 이상 기창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chi^2=8.531, p<.01$ ), 2017년은 예비창업자 4.7%, 기창업자 20.7%로 나타나 기창업자의 선정이 거의 5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6.296, p<.001$ ).

이와 같이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은 여성보다는 남성, 일반창업보다는 기술창업, 지식서비스보다는 제조, 예비창업보다는 기창업의 선정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창업기업의 특성변인과 선정여부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창업기업 특성에 따른 선정여부간의 관계

특성		2015			2016			2017			전체		
		비선정	선정	계	비선정	선정	계	비선정	선정	계	비선정	선정	계
창업자 성별	여성	77(96.3)	3(3.8)	80(100.0)	67(100.0)	-	67(100.0)	62(92.5)	5(7.5)	67(100.0)	206(96.3)	8(3.7)	214(100.0)
	남성	227(91.2)	22(8.8)	249(100.0)	212(89.8)	24(10.2)	236(100.0)	229(83.6)	45(16.4)	274(100.0)	668(88.0)	91(12.0)	759(100.0)
	$\chi^2(p)$	2.230(.135)			7.400**(.007)			3.455(.063)			12.435***(.000)		
창업 유형	일반	256(93.4)	18(6.6)	274(100.0)	203(95.8)	9(4.2)	212(100.0)	171(91.9)	15(8.1)	186(100.0)	630(93.7)	42(6.3)	672(100.0)
	기술	48(87.3)	7(12.7)	55(100.0)	76(83.5)	15(16.5)	91(100.0)	120(77.4)	35(22.6)	155(100.0)	244(81.1)	57(18.9)	301(100.0)
	$\chi^2(p)$	2.474(.116)			13.075***(.000)			14.238***(.000)			30.547***(.000)		
창업 업종	지식	220(94.0)	14(6.0)	234(100.0)	180(92.3)	15(7.7)	195(100.0)	193(87.3)	28(12.7)	221(100.0)	593(91.2)	57(8.8)	650(100.0)
	제조	84(88.4)	11(11.6)	95(100.0)	99(91.7)	9(8.3)	108(100.0)	98(81.7)	22(18.3)	120(100.0)	281(87.0)	42(13.0)	323(100.0)
	$\chi^2(p)$	3.014(.083)			.039(.843)			1.994(.158)			4.232* (.040)		
창업 여부	예비창업	191(92.3)	16(7.7)	207(100.0)	120(97.6)	3(2.4)	123(100.0)	122(95.3)	6(4.7)	128(100.0)	433(94.5)	25(5.5)	458(100.0)
	기창업	113(92.6)	9(7.4)	122(100.0)	159(88.3)	21(11.7)	180(100.0)	169(79.3)	44(20.7)	213(100.0)	441(85.6)	74(14.4)	515(100.0)
	$\chi^2(p)$	.014(.907)			8.531**(.003)			16.296***(.000)			21.059***(.000)		

\* $p<.05$  \*\* $p<.01$  \*\*\* $p<.001$

### 3.2.3 창업기업 선정평가항목의 선정여부에 대한 차별성 분석

다음은 선정평가항목에 대한 창업기업 선정여부와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도별 일부 평가항목들의 변동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통합된 자료를 활용할 수 없어서 연도별로 분석을 적용하였다.

용하였다.

연도별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선정에 영향을 주는 선정평가항목의 영향력과 연도별 선정여부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다음 <표 6>과 같다.

<표 5> 창업기업 선정평가항목의 최근 3년 변화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A	창업자의 역량(20)	A1.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	●	●	-
		A2. 창업자의 보유역량 (경력, 전공, 입상실적)	●	●	●	-
B	창업아이템의 기술성(30)	B1.기술의 차별성(독창성 구성)	●	●	●	-
		B2.기술의 난이도(기술적 수준)	●	●	●	-
		B3.기술의 구현(실현) 가능성	●	●	●	-
		B4.사업모델(FM)의 차별성	-	-	●	2017년 추가
C	창업아이템의 시장성(30)	C1.창업아이템의 홍보 및 판매전략 우수성	●	●	●	-
		C2.창업아이템의 시장진입 가능성(경쟁력)	●	-	-	2015년 이후 제외
		C3.창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수익성)	●	●	●	-
		C4.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	●	●	2016년 추가 후 2017년 새로운 항목으로 변경
D	사업화 실현가능성 (20)	D1.창업사업화 실현계획 적정성(추진일정)	●	●	-	2017년 제외
		D2.창업사업화 실현계획 적정성(자금계획)	●	●	-	2017년 제외
E	국제진출 가능성(10)	D3.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해외수출량 확보계획의 구체성	-	-	●	2016년 항목에 해외수출관련 내용 포함 별도 항목으로 분리
F	기술개발 역량(10)	E1.기술집약도(연구개발 투자 비율) 연구개발 전담부서, 장비보유현황등	-	-	●	2017년에 연구개발 내용 포함

<표 6> 선정평가항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2015년			2016년			2017년					
	B	Exp(B)	Wals(p)	B	Exp(B)	Wals(p)	B	Exp(B)	Wals(p)			
성별(남)	2.248	9.471	3.444† (.063)	18.769	141713856.018	.000(.996)	.943	2.566	2.488(.115)			
유형(기술)	-	-	-	.593	1.809	.811(.368)	.189	1.208	.167(.683)			
업종(제조)	-.070	.932	.007(.935)	-.307	.736	.199(.655)	.266	1.305	.450(.503)			
창업(기창업)	-.260	.771	.099(.753)	2.315	10.122	5.802*(.016)	1.817	6.151	11.779**(.001)			
A1	-1.286	.276	1.054(.305)	.689	1.992	2.416(.120)	.535	1.707	.897(.343)			
A2	2.508	12.283	3.152† (.076)	.501	1.651	1.758(.185)	-.028	.972	.004(.949)			
B1	.029	1.029	.001(.981)	-.115	.892	.097(.755)	.200	1.221	.219(.640)			
B2	1.310	3.705	1.177(.278)	.201	1.223	.253(.615)	.046	1.047	.011(.916)			
B3	-.070	.932	.004(.952)	.079	1.082	.029(.864)	.569	1.767	1.580(.209)			
B4	-	-	-	-	-	-	.054	1.055	.016(.900)			
C1	.857	2.356	.494(.482)	-.346	.708	.506(.477)	.257	1.294	.332(.564)			
C2	.470	1.601	.193(.661)	.119	1.126	.133(.716)	.460	1.584	.969(.325)			
C3	-.448	.639	.147(.701)	-	-	-	-	-	-			
D1	-.342	.710	.081(.776)	-.176	.838	.202(.653)	-	-	-			
D2	.176	1.192	.031(.859)	.319	1.375	.790(.374)	-	-	-			
C4_D3	-	-	-	.780	2.182	2.951† (.086)	.317	1.373	.690(.406)			
E	-	-	-	-	-	-	-.093	.911	.061(.804)			
상수항	-26.824	.000	27.418(.000)	-39.983	.000	.000(.992)	-19.763	.000	29.309(.000)			
χ2(p)	118.363***(.000)			87.619(.000)			92.146(.000)					
-2LL	58.546			80.140			192.122					
R2	Cox & Snell R2=.302			Cox & Snell R2=.251			Cox & Snell R2=.237					
	Nagelkerke R2=.726			Nagelkerke R2 =.591			Nagelkerke R2 =.419					
예측												
선정 여부	비선정	297	7	97.7	비선정	272	7	97.5	비선정	283	8	97.3
	선정	7	18	72.0	선정	12	12	50.0	선정	29	21	42.0
	전체%			95.7	전체%			93.7	전체%			89.1

† p<.10 \*p<.05 \*\*p<.01 \*\*\*p<.001

연도별 창업기업 선정평가 개별항목에 의한 선정여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2015년은 성별(남), A2(창업자의 보유역량), 2016년은 창업여부(기창업), C4\_D3(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해외수출 확보계획의 구체성), 2017년은 창업여부(기창업)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연도별 선정여부에 대한 정확도를 살펴보면, 2015년 95.7%, 2016년 93.7%, 2017년 89.1%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선정의 정확도보다는 선정의 정확도가 더욱 낮음을 알 수 있다. 선정에 대한 정확도는 2015년 72.0%, 2016년 50.0%, 2017년 42.0%로 평가항목을 통하여 선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정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창업기업 선정평가항목은 선정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확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2016년-2017년의 새로 생성된 항목들의 포함으로 인하여 2015년에 비해 더욱 낮은 정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창업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창업기업 선정여부에 대한 정확도를 검토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선별기준으로 적합 여부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선정여부에 대한 선정평가지표의 연도별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정평가지표가 창업기업 선정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선정비율이 높고, 창업업종의 경우 지식기반 창업보다 제조기반 창업이 높은 수준으로 선정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특성상 1차 서류평가로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2차로 발표평가의 능력이 요구되어, 여성의 창업자의 경우 업종의 특성 상 낮은 지원율과 준비 및 관련역량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지원자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향후 지원자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기술창업의 높은 선정비율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혁신형 창업기업을 발굴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결과로 보이며, 제조기반 창업 선정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성과는 창업기업의 정량적인 매출과 고용에 집중되어 지식기반 창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기반 창업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창업지원정책의 성과 측정에 있어 정량적인 지표 및 초기 창업기업임을 감안하여 정성적인 지표의 개발 및 반영이 필요하다.

둘째, 선정평가항목에 의한 선정여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2015년 성별(남), 창업자의 보유역량, 2016년 창업여부(기창업),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2017년 창업여부(기창업)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기업의 특성변인 이외에 평가항목으로는 창업자의 보유역량과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만이 선정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창업자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김진수 외, 2013). 더불어 기존 선정평가항목이 충분한 이론적 근거로 개발된 것이 아닌 실무적 관점에 초점을 둔 심사평가를 위한 기준에 따른 결과물로서 주장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김우재·이홍배, 2015). 또한 2015년-2016년 지표대비 2017년 평가항목은 선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최근 3년 전체 선정 정확도를 살펴보면 매년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2015년 95.7%, 2016년 93.7%, 2017년 89.1%), 비선정의 정확도(2015년 97.7%, 2016년 97.5%, 2017년 97.3%)보다 선정에 대한 정확도(2015년 72.0%, 2016년 50.0%, 2017년 42.0%)가 더욱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의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구성항목은 실제 선정여부의 판정에 부정확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 흐름의 변화에 따른 지표의 변경은 선정의 정확도를 더욱 낮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선정평가지표의 전반적인 검토 및 관련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지원정책의 우수 창업기업을 선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을 시도하였으며, 선정여부에 대한 판별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창업지원정책 변화에 따른 매년 평가지표의 변경은 선정여부의 유의성을 오히려 낮게 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평가지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수 창업기업 선별기능에 대한 중요성 및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창업선도대학 중 2017년 최우수 대학 3개의 표본만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향후 연구에서는 선정평가지표가 실제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및 창업성공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규명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정평가 시 측정된 세부 평가항목이 실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 후 변화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평가지표의 적정성과 평가방법의 실효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

구정희·최종민(2012). BSC관점에서 AHP기법을 이용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3(8), 3371-3380.  
 김경훈(2017).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현황 점검, *한국무역협회*.  
 김선우·김영환·이정우·김석현·박기운·오지선·손하늬·김동현(2015). *창업선도대학 성과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성태·홍재범(2015). 고성장기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23(3), 373-396.
- 김우재·이홍배(2015).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 항목의 창업기업별 유효성, *산업경제연구*, 28(2), 809-834.
- 김종민(2000). 제조기업의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확인적 연구, *동의공업대학 논문집*, 26(1), 445-458.
- 김진수·이창영·이우진·김용태(2013). *유망 창업자 발굴을 위한 선정평가 모델 개발*, 창업진흥원.
- 김진수·이창영·김현·황인호·이상준·이혜영·이혜진(2016). *창업기업의 생존율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사)한국창업경영연구원.
- 박인선·지기철(2007). 기술형 창업기업 투자타당성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18, 111-124.
- 성장수·박주연(2016).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3), 87-96.
- 이성근·김상곤(2003). 창업보육사업 입주기업 선정기준의 개선방안, *영남지역발전연구*, 1-21.
- 이창영·황인호·김진수(2016). 기술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의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2), 49-62.
- 이희경(2017).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병욱·서영호(2017). IT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2(5), 239-262.
- 중소기업청(2016a).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보도자료.
- 중소기업청(2016b). *2017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공고문.
-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공고, 공고문.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7). *2017년 창업지원기업 이력 성과조사* 보고서.
- 창업진흥원(2015-2017). *창업선도대학 창업자 평가 가이드*, 매뉴얼.
- 하규수·김도현·유병준·진신진·박배진·강제현·김수진(2013). *국내 창업정책의 변화 및 평가*, 창업진흥원.
- Ahmad, N. H., Halim, H. A., & Zainal, S. R. M.(2010). Is entrepreneurial competency the silver bullet for SME success in a developing nation,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4(2), 67-75.
- Barazandeh, M., Parvizian, K., Alizadeh, M., & Khosravi, S.(2015). Investigating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business performance among early stage entrepreneurs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10 survey data),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5(18), 1-12.
- Bergek, A., & Norrman, C.(2008). Incubator Best Practice: A framework, *Technovation*, 28(1), 20-28.
- Gu, J. H., & Choi, J. I.(2012).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ing business by AHP method in a BSC viewpoint : Focused on Daejeon TP,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8), 3371-3380
- Jeong, B. O., & Suh, Y. H.(2017). Effects of the Technology & Business Factors of IT start-up'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5), 239-262
- Kim, K. H.(2017). *A Study on the Status of Corporate Ecosystem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 Kim, J. M.(2000). *A Confirmatory Study on Supplier Selection Criteria for Manufacturers*,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26(1), 445-458.
- Kim, J. S., Lee, C. Y., Lee W. S., & Kim W. T.(2013). *Developed a selection evaluation model for finding promising entrepreneurs*,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Kim, J. S., Lee, C. Y., Kim, H., Hwang, I. H., Lee, S. J., Lee, H. Y., & Lee, H. J.(2016). *Analysis of Survival Rate and Job Creation Effectiveness of Start-up*, Korea Entrepreneurship &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Kim, S. W, Kim, Y. H., Lee, J. W., Kim, S. H., Park G. Y., Oh, J. S., Son H. U., & Kim, D, H.(2015). *Research on startup leading university performance analysi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im, S. T., & Hong J. B.(2015). A Study on Determinants of High-growth Firms: Focusing on Technology Appraisal Indicator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3(3), 373-396.
- Kim, W. J., & Lee, H. B.(2015). Effectiveness of Screening Items Distinguishing Successful from Unsuccessful Start-up Companies in the Business Incubator Screening Process,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8(2), 809-834.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15-2017). *Founder Evaluation Guide of start-up leading university*.
- Lai, M.(2006). Venture Capitalist Screening Criteria and Associated Tools: Progressive Screening Matrix & Mean-IRR Index, *iTM Ventures Inc*, 1-20.
- Lee, C. Y., Hwang, I. H., & Kim, J. S.(2016). The influential Factors to Growth Intention and Performance in Early-stage Technology-based Start-up Compan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49-62.
- Lee, H. K.(201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Technology-based Start-up Enterprises: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Korea University, Doctoral thesis.
- Lee, S. K., & Kim, S. G.(2003). Improvements of Selection Criteria for Accomodating Start-up Businesses in TBI Projects, *Yeongnam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1-21.
- MacMillan, I. C., Siegel, R., & Narasimha, P. S.(1985). Criteria used by venture capitalists to evaluate new venture proposal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119-128.
- Marino, K. E., & De Noble, A. F.(1997). Growth and early returns in technology-based manufacturing ventures, *The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8(2), 225-242.
- Ministry of SMEs & Startups(2016a). *Advanced Plan of Start-up Leading University*.
- Ministry of SMEs & Startups(2016b). *Announcement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for 2017*.
- Ministry of SMEs & Startups(2018). *Announcement of status of start-up support projects in 2018*.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17). *A Survey on the History and Performance of a start-up support*



*company in 2017.*

- Park, I. S., & Ji, K. C.(2007). A Study on Developing the Evaluation Measures of Investment Validity for Venture Enterprises,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18, 111-124.
- Sarwoko, E., Surachman, A., & Hadiwidjojo, D.(2013).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y as determinants of business performance in SMEs,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7(3), 31-38.
- Sung, C. S., & Park, J. Y.(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 Social Network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87-96.
- Tyebjee, T. T., & Bruno, A. V.(1984). A model of venture capitalist investment activity, *Management Science*, 30(9), 1051-1066.
- Ha, G. S., Kim, D. H., Yu, B. J., Jin, S. J., Park, B. J., Kang, J. H., & Kim, S. J.(2013). *Changes and Evaluation of Domestic Entrepreneurship Policy*,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A Study on the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Assessment Items for Selecting Start-ups: Focusing on Project Fostering Start-ups through Leading Universities

Jung, Kyung Hee\*  
Sung, Chang Soo\*\*

##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accuracy of the assessment items for selecting start-ups used in the project to support start-ups and verified their validity in determining whether they are appropriate assessment items based on selection criteria. The results of 973 start-ups that applied for the project fostering startup leading universities were collected and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start-ups were identified in terms of selection. Second, the impact of selection by assessment items was gender in 2015, capability of the founder, business establishment in 2016, performance and potential in the global market, and business startup in 2017. Third, the overall selection accuracy analysis for the last three years confirmed that the accuracy of the selection is lower each year and that the accuracy of the selection is lower than the accuracy of the non-selection. This means that the current assessment items for selecting start-ups are inaccurate for selection, and that changes in the items due to changes in the start-up environment each year have led to lower accuracy of selection.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raised the importance of assessment item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assessment items for the screening functions of good start-ups to enhance efficiency of the policies for startup support.

*Keywords: Start-up, Policy for startup support, Assessment items for selecting start-ups*

---

\* First Author, Doctor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in Dongguk University, heemiso@dongguk.edu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in Dongguk University, redsun44@dongguk.edu